

“혹독한 수행 자처하니 곧 셋별을 함께 보리라...”

상월선원 용상방과 방함록 ‘발원문’ 쓴 헤거스님

南漢城下霜月白 남한산성 아래 휘영청 밝은 서리달빛
朔風寒雪松葉黑 삭풍한설에 솔잎마저 꿈꿨 얼어 검푸르다
少林隻履東來後 달마스님 법맥이 우리나라에 전해온 오늘
碧眼炯炯水石壁 밝고 밝은 선객 눈빛 차가운 천막 아래 빛나네

서울 금강선원장 헤거대종사(사진)가 친필로 쓴 위례 상월선원 용상방(龍象榜)과 ‘방함록(芳衡錄) 서(序)’가 공개됐다. 본지는 1월6일 금강선원에서 헤거스님을 만나 용상방과 방함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용상방은 결제 때 선원 스님들의 범명과 소임을 적은 것이고, 방함록은 안거 기간 동안 정진한 대중과 외호 대중의 명단이다. 결제 때 선원에서 용상방을 보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방함록 앞에 서문은 좀처럼 보기 어렵다. 헤거스님은 “선방에서 방함록 앞에 서문을 붙인 전통을 떠올리며 ‘상월선원 서(序)’라고 이름 짓고 글을 썼는데 사실은 ‘발원문’의 성격이 강하다”며 “대중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수행하지 못하지만, 스님들 정진 잘 하라는 바람을 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초라고 할 수 있는 ‘방함록 발원문’을 쓴 연유에 대해 스님은 “상월선원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이 장에 없이 공부를 성취하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또 위례 신도시 포교를 위한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됐으면 하는 뜻도 더했다”고 밝혔다.

앞서 헤거스님은 기해년 동안거 결제 전 ‘상월등휘(霜月騰輝, ‘상월’의 광명이 온 우주를 비추어 맑고 깨끗하게 만든다)’를 직접 써서 상월선원 결사를 찬탄

천막결사 원만하게 회향하고
상월선원 대작불사 성취 ‘발원’

공부하는 곳에 흠집 찾기보다
더 큰 고행 구상하는게 낫다...
수행하는 스님들 외호만 해도
업장소멸 되니 오직 기도정진

한 적이 있다. 천막결사가 원만히 회향하길 사부대중과 발원했던 스님은 1월11일 수록재가 봉행된 상월선원 법당에서 불자들에게 법을 설하기도 했다.

처음 상월선원을 찾은 스님은 상월선원이 자리잡은 산 이름을 알고 놀라웠다고 한다. 청량산, 일장산 혹은 주정산이란 이름이 깨달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님은 “청량은 맑고 깨끗해 업장이 없어진다는 뜻이고 일장은 해가 길다 즉 밤이 없다는 것으로 곧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다. 낮이 길다는 주장 또한 마찬가지로 풀이하며 “깨달음을 뜻하는 이름을 가진 덕분에 좋은 회향이 열린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대다수 도량이 불사 후 정진을 하는 게 일반적인



데, 상월선원은 동안거 결제 내내 스님들이 정진하고 기도한 후에 불사가 시작되니 도량이 춤을 추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헤거스님은 추운 겨울 고행을 이어가는 상월선원 정진대중의 수행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사실 좁은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정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땅아지처럼 사방전지로 가고 싶어하는 몸통이를 작은 방석에 묶어 정진하다 보면 몸이 죽겠다 싶을 순간이 온다. 그때 저절로 마음까지 복잡해진다. 스님은 “그 마음을 극복하고 나면 몸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며 “지금 상월선원 스님들은 그 힘을 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월선원 결제가 원만히 끝나는 것만으로 수행의 새 풍도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사람은 가장 어려울 때 크게 발심하기 마련이다. 요새 고행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냐”며 “상월선원 정규는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해낼 수 없기에 고행자세를 수행이라 할 수 있다”고 스님은 말했다. “정정한 마음, 구경심으로 가는 길은 신명을 버리고 용맹정진하는 것인데, 그런 뜻에서 결사는 최고의 마음공부”라며 “회향이 잘 이뤄지면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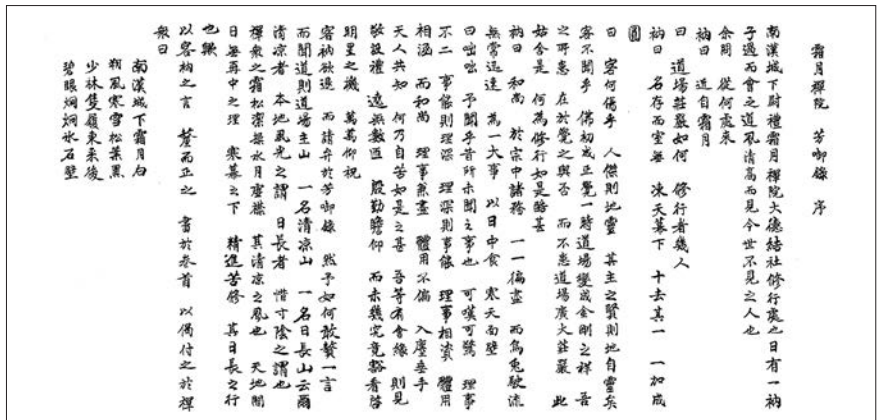
교는 새로운 수행문화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옛날에 선방에서 용맹정진을 할 때 스님 3분의2는 잠을 잤다”며 “그 바람에 죽비에 등이 터질 정도였지만, 해제하고 나면 모두들 한 뼘씩 커져 나왔다”고 회상하며 “상월선원 대중 스님들도 비록 몸이 아프다 하더라도 억겁의 업을 소멸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결제가 넘어가는 동안에도 일부에서 시비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해제하고 나오면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며 “공부하는 곳에 대해 흠집을 찾고 의

심하기보다 차라리 더 큰 고행을 구상하는 게 낫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수행하는 스님들 시중을 들거나 참관만 해도 업장이 소멸된다”며 신도들에게 열심히 기도할 것을 당부했다. “이미 많은 불자들이 다녀갔고 해제까지 수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추산되니, 도량에 발심한 신도들이 폭주하는 형국이라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다”며 “밖에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대중들의 기운을 받아 상월선원 결제 대중들이 무탈하게 정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龍象榜	會主 海峰 慧然	禪院長 真覺	立主 性谷	開客 虎山	持殿 善玄	淨掃 昇斗	侍者 道林	茶角 仁山	座主 松然	護法 弘宗	都監 妙風	住持 元顯
龍象榜	會主 海峰 慧然	禪院長 真覺	立主 性谷	開客 虎山	持殿 善玄	淨掃 昇斗	侍者 道林	茶角 仁山	座主 松然	護法 弘宗	都監 妙風	住持 元顯

헤거스님이 직접 쓴 ‘상월선원 방함록 발원문’(사진 위)과 용상방.

● 상월선원 방함록 발원문에는...

“이사무애한 자승스님 비롯 정진대중 모두 확철태오하길”

헤거스님은 발원문에서 선객과 문답을 나누는 형식을 통해 엄동설한 천막결사 중인 위례 상월선원을 소개했다. 무엇보다 발원문에는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을 비롯해 9명 대중 스님들에 대한 찬탄과 함께 스님들 모두 정각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스님은 “자승스님은 종종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모두 편력했는데, 덧없는 세월 무상하여, 무상의 신속함을 통감하고 일대사를 위해 일종식으로 차가운 곳에서 면벽수행을 하는 것”이라며 총무원장을 두 차례나 역임한 자승스님이 깨달음을 위해 하루 한 끼를 먹고 추위도 제대로 막지 못하는 천막에서 정진 중임을 역설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법계와 사법계는 둘이 아니라, 사법계에 능하면 이법계의 조에 심오하고, 이법계가 심오하면 사법계에 능한 터라, 이법계와 사법계가 서로 힘입고, 본체와 작용이 서로 함유하고 있다”며 이사무애한 자승스님이 혹독한 수행을 자처하니 곧 부처

님께서 보셨던 셋별을 함께 볼 것이란 기대를 담았다.

이와 함께 도량에 대한 얘기도 덧붙였다. 헤거스님은 “상월 도량의 주산은 일명 청량산이요, 일명 일장산이라 한다. 청량이란 본지풍광을 말하고, 일장이란 춘음을 아끼는 것”이라며 “선승남자의 고결한 지조와 허명한 흥금은 그 청량산의 기풍을 말해주고, 천지 사이에 하루해는 두 번 다시 드는 일이 없기에 차가운 천막 아래에서 고행 정진을 하는 것은 그 일장산의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헤거스님은 동안거 결제 후 예정된 상월선원 불사에 대한 근심이라도 혹시 있다면 그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게 덕담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처음 정각을 성취하시자, 일시에 모든 도량이 금강으로 변한 사실”을 환기시키고 “우리가 걱정해야 할 일은 정각을 성취하느냐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도량의 광대한 장엄은 걱정할 대상이 아니다”며 일심으로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궁플란트치과의원은 부모님께 씹는 즐거움을 되돌려 드립니다.
치과용레이저를 이용하여 임플란트를 시술합니다.

궁플란트치과의원에서 시술하는 임플란트

- 잇몸뼈가 부족한 분을 위한 임플란트
- 치아가 전혀 없는 환자를 위한 임플란트
- 조절 가능한 고협압 환자를 위한 임플란트
- 조절 가능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임플란트

진료안내

-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
- 잇몸치료
- 스킨링
- 심미치료
- 예방치료
- 임플란트 치료
- 사량니발치
- 치아미백
- 보존치료
- 턱관절장애치료
- 임플란트를 이용한 틀니

진료시간

- 평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6시
- 토 요 일 : 오전 9시 30분~오후 3시 30분
- 점심시간 : 오후 1시~오후 2시
- 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궁플란트치과의원

조계사 앞 사거리 위치 · 지하철 종각역 2번 출구
예약문의 02-722-2870
www.GungPlant.co.kr